

도,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 본격 추진

지역자원 활용한 다양한 분야 10개 동아리 선정... 도내 청년과 신규전입 청년간 교류증진·지역 활동 참여기회 보장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청년들의 교류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발굴한 2022년 신규사업인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 이웃청년 웰컴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체류중인 청년과 신규전입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역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애착심 형성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동아리는 이번달 도와 사업협약을 맺은 후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1개 동아리당 30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지난 7월, 동아리를 모집하여 24

개팀이 접수되었으며, 1~2차 서류 및 발표심사를 거쳐,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개성 있고 특색 있는 10개 동아리가 최종 선정하였다.

'전북대학교 중앙동물대 덩더쿵' 동아리는 청년들로 구성되어 입실 필봉국을 배우면서 우리의 가락을 배우며 익히고, 정기 공연을 통해 전라북도 일산 속 국악 전파에 앞장설 계획이다.

'스무디' 동아리와 '전북 청년스마트팜 연구회' 동아리는 청년 농업인들과의 교류 및 외부강사 초빙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합해피' 동아리는 전북 청년정책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청년정책을 찾아보고 소개하는 활동과 청년문화와 관광 콘텐츠 개발을 기획한다.

'함께하개' 동아리는 반려동물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및 유기견 입시 보호소 자원봉사를 통해 동물 생명 존중의식이 우리 삶 속에 깃들기 위해 활동한다.

이 외에도 진로탐색을 위한 '전치사', 창업을 주제로 독서토론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여하는 '전북청년네트워크'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을 목표로 결성된 '메타버스 부릉부릉' 동아리 등이 활발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선정된 10개 동아리와 함께 내달 청년축제 주간(9.17주간)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동아리 활동현황,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사업 참여 청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정책에 반영 계획이다.

강승구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웃청년 웰컴활동 동아리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소통·교류 및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고, 신규전입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잼버리서포터즈 '해변에 뗏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기원 캠페인 전개 고창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활동 펼쳐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김동수 이사장)는 25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잼버리서포터즈가 뗏다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잼버리서포터즈가 뗏다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잼버리서포터즈가 뗏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김동수 이사장)는 25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잼버리서포터즈가 뗏다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잼버리서포터즈가 뗏다

피서객들에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알리기에 열을 올렸다. 올해 추진되는 '잼버리 성공기원 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은 도내 환경정화가 필요한 시가지 및 관광명소를 대상으로 9월(익산), 10월(전주)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에 두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제5기 도민 서포터즈를 모집중으로 세계잼버리에 관심 있는 청소년, 대학생, 일반인 등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활동 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 사무처(229-9601)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나선다

지역별 분포현황을 고려해 교란생물 번식 전 집중 방제·사업비 5억 2400만원 투입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가시박, 큰입배스 등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작업에 나선다.

전북도는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올해 사업비 5억2,400만원을 투입해 하천·습지 등에 대량 서식하는 생태계교란생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퇴치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태계교란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자연적으로 유입돼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생물로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하다.

대부분 번식력이 뛰어나 쉽게 확산되고 우리나라 토종 동·식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환경부는 1998



년부터 황소개구리, 가시박 등 35종을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거사업 대상은 가시박과 돼지풀 등 교란식물과 큰입배스, 블루길 등 교란동물이다. 대상지역은 교

란생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는 시군의 하천변 및 탐방로 등이다.

섬진강변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가시박의 경우에는 주변의 수목과 농작물 등을 감안해 울타리 등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빠른 성

장과 강한 번식력으로 지역생태계 전반에 크게 위협이 되는 교란 식물로 알려졌다.

가시박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8월까지의 손으로 직접 줄기를 뽑아 제거하고, 열매가 맺히기 전인 9~10월에는 예초기로 지면을 깎는 방식으로 식물 종자를 제거해야 한다.

도는 내년 사업에 대비해 10월부터 11월까지 생태계교란생물 서식지를 조사하고, 생태계교란생물의 집중 제거 기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생태계교란생물을 제거해 우리 고유의 토종생물 보호와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과 시·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도 - 친환경농업협회, 정책간담회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 신원식 농축산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협회와 25일 고창군 아산면에서 '2023년 친환경농업분야 사업(안) 및 친환경농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도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기에 전북 친환경농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북 친환경농업협회(회장 박서구)와 간담회를 갖고 친환경농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유통·소비 활성화, 농업환경 보전 등 3개 분야 13개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내년 도 예산 편성 방향 등을 논의하면서 전북도 친환경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했다.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다품목 생산 확대 유도를 위한 품목다양화 사업과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관련 시설·장비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확대 요구하기로 했고, 친환경농업 신규인력

전북광역새일 - 제주새일센터 네트워킹 위한 워크숍 개최



25-26일 양일 간 제주도에서

전북광역새일하기센터(센터장 진정희)는 25~26일 양일 간 제주도에서 '2022 하반기 광역·지역센터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 프로그램은 전북광역새일센터, 전북새일센터, 전주새일센터, 익산새일센터, 군산새일센터, 제주새일센터 등 5개 센터가 참여했다.

이는 전북-제주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속적인 근로 방안을 마련하고, 또 상반기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추진현황 공유와 하반기 사업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장은성기자

특히, 제주새일센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경력단절예방 실천 우수기업 방문(행복캐릭터 에코제주센터)을 통해 취업지원사업과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의 새로운 전략을 발굴에 중점을 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광역센터가 없는 제주지역 제주새일센터와 전북광역새일센터 간 정보교류와 지역별 새일센터의 성과 공유 및 확산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정희 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로, 지역 새일센터 간 지속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취업지원팀(063-254-3718)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정읍시 공고 제2022-115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보상계획 열람 공고

정읍시 국도1호선(홍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을 듣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의 열람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 '보상계획'에 대하여 의견(이의)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2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0일

도로의 명칭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도로구역) 위치	사업내용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국도1호선	도로사업 / 국도1호선(홍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	전북 정읍시 구룡동	○ 연장 : 2.309km ○ 폭 : 5.0m ○ 면적 : 20,568㎡	정읍시장/ 정읍시 읍정로 234 (우성동 440-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후지-풍원선(군도3호) 도로확포장공사 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3. 열람장소, 열람기간

사업명	열람장소	열람기간
국도1호선(홍호교차로) 진출입로 개설공사	정읍시청 건설과	2022. 8. 26. ~ 2022. 9. 9. (15일간)

* 사업구간의 위치도 및 관련 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며, 열람기간 중에 열람이 가능합니다.

4. 보상협의에 관한 사항

- 보상시기 : 2022. 9. 15. ~ 사업완료시까지(예산범위내 보상 실시)
- 보상방법 : 3인(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
- 보상절차 :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 보상액산정 → 손실보상협의요청 → 협의(계약체결) → 소유권 이전 → 보상금 지급 → (협의불성립시) → 수용재결 → 보상금 공탁
- *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토지 소유자 개인별로 통지 예정임.

5. 열람 및 의견(이의신청) 제출

- 제출기간 : 2022. 8. 26. ~ 2022. 9. 9.(15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편지 및 물건 ◀◀

가. 편지지번 : 전북 정읍시 구룡동 699-14, 713-6, 570-3, 570-5, 570-1, 699-5, 699-17, 710, 710-2, 839, 839-1, 778, 779, 781, 840-1, 841, 843, 842-1, 809, 841-3, 536-3, 535, 841-1, 840-2, 785-1, 782, 783-1, 784-1, 783, 784, 889-2, 714, 714-2, 544-4, 514-6, 541-1, 541-3, 541-5, 658-6

나. 물건 등 :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상 지장물 일체

2022. 8. 26.
정 읍 시 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분실공고

- 분실자 : 홍하연
- 분실일시 : 2022년 8월 13일 오후 3시경
- 분실장소 : 불상
- 분실품명 : 원주더샵308동1202호 발코니 확장계약서